

타이완, 합섬원료 한국 앞지른다!

타이완 생산능력 625만5000톤 ... 국내 생산능력 664만5000톤 비슷

타이완 주요 기업의 합섬원료 생산능력은 625만5000톤으로 조사됐고 국내기업의 생산능력은 664만5000톤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에는 타이완의 합섬원료 생산능력이 국내 생산능력을 앞지를 전망이다.

타이완 주요 합섬원료 생산기업들이 앞다퉈 CPLM과 AN, EG 증설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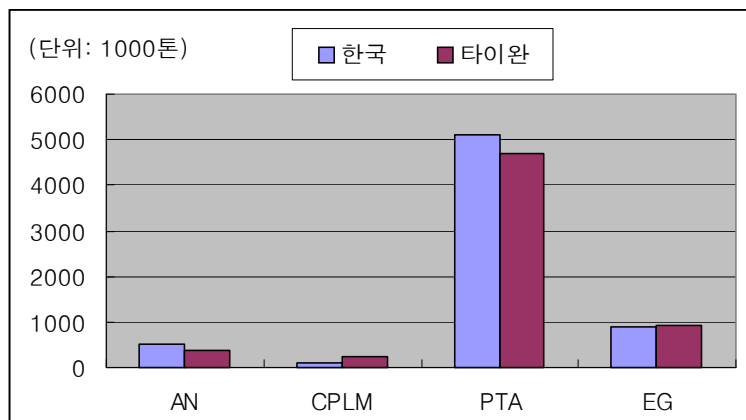
타이완의 AN(Acrylonitrile) 생산능력은 총 39만톤으로 CDPC가 19만톤, FPC는 2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데 2004년에 4만톤 증설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PLM(Caprolactam)은 CDPC가 23만5000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고 2004년 2만5000톤 증설계획을 고려중이다.

PTA(Purified Terethalate Acid)는 CAPCO 212만톤, FCFC 125만톤, DPFEP 90만톤, TUNTEX 42만톤으로 총 469만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EG(Ethylene Glycol) 생산능력은 총 94만톤으로 CMFC 13만톤, NanChung과 NanYa가 각각 30만톤, OUCC는 21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NanYa는 2003년 하반기에 EG 30만톤 플랜트를 두배로 증설해 총 60만톤 플랜트로 확대할 예정이다.

타이완과 국내 합섬원료 생산능력 비교



* 2003년 4월 기준

국내 AN 생산능력은 52만톤으로 동서석유화학과 태광산업이 각각 27만톤, 25만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며 CPLM 생산능력은 12만톤으로 Capro에서 독점생산하고 있다.

PTA 생산능력은 총 512만톤으로 KP케미칼 100만톤, 삼남석유화학 150만톤, 삼성석유화학 146만톤, SK케미칼과 태광산업이 각각 42만톤, 효성은 32만톤으로 나타났다.

EG 생산능력은 삼성아토피나 11만톤, 현대석유화학 37만5000톤, 호남석유화학 40만톤으로 88만5000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배연호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26>